

## 북한의 맞춤법\*

최 호 철

(국어연구소 연구원)

### 1. 머리말

1945년 8월 15일은 우리 민족에게 기쁨과 슬픔이 엇갈린 날이었다. 1950년 6월 25일은 우리 민족이 동족상잔이라는 참극을 겪은 날이었다. 남북으로 두 동강 난 한반도는 증오와 불신으로 40여년을 보냈다. 우리 민족의 가슴에 통일의 염원은 양금으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가로막힌 장벽은 갈수록 남북의 사이를 벌어지게 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남북은 달라지고 있다. 남북한 언어가 서로 달라지는 것이 예외일 수는 없다.

언어는 그 민족을 특징짓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언어가 달라진다는 것은 곧 민족이 갈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토는 이미 갈라졌고, 언어는 지금 달라지고 있고, 민족은 아직 둘로 나뉘지 않았다. 지난날 국토가 갈라짐은 막지 못했지만 오늘날 언어가 달라짐은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최소한 남북한 언어의 실상은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 가운데서 남북한의 맞춤법을 빼놓을 수 없다. 이 글에서는 북한의 맞춤법을 살피게 될 것이다.

분단 직후 남북한에서 공통으로 실시되던 맞춤법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었다.<sup>1)</sup> 이 ‘통일안’은 1933년에 제정된 것으로 그 후에 일부 개정

\* 북한의 맞춤법은 현재 4부로 되어 있는 ‘조선말규범집’에서 띄어쓰기와 별개의 사항이다. ‘규범집’에서 맞춤법은 단어 내부의 표기만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에 비해 남한의 ‘맞춤법’은 띄어쓰기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맞춤법에 대한 남북의 개념이 다를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의 맞춤법은 띄어쓰기까지를 포함한 개념이며, 이하에서도 마찬가지다.

1) 이는 1947년 3월 8일에 간행된 ‘표준말 맞춤법 사전’에 나타난 “朝鮮語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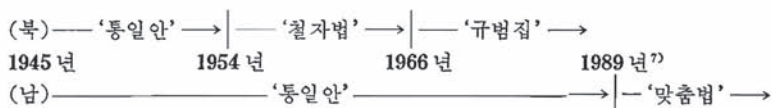
이 있었다.<sup>2)</sup> 남한은 1948년 정부 수립 후 이를 국가의 공인된 맞춤법으로 삼고 계속 사용해 오다가, 1988년 1월 19일에 새로운 '한글 맞춤법'을 고시하였다.<sup>3)</sup> 북한은 1954년 9월에 '조선어 철자법'을 공포하여 사용하다가,<sup>4)</sup> 다시 1966년 7월에 '조선말규범집'을 공포하였다.<sup>5)</sup> 그 뒤 두 번

唯一한 綴字法 統一案과 標準語는 이미 朝鮮語 學會에서 發表하여 대개 누구든지 그에 讚同하여 오는 것인데, 이제 이들을 集大成하고, 또 附錄을 더하여서 '표준말 맞춤법 사전'을 發刊하여 一般의 使用에 便利하게 하였다. ……」와 같은 태도로써 인정되던 터이다. 金敏洙(1985: 79)에서 재인용.

- 2) 조선어학회가 1930년 12월 13일에 시작하여 1932년 12월에 원안의 작성을 마치고 두 차례의 검토 회의를 거친 다음 1933년 10월 19일에 확정된 것이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다. 1936년 10월 28일에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을 발표한 조선어학회는 이에 따라 1937년 3월 1일에 '통일안'의 부록 표준어 제 7, 8항의 표준말 어휘 전부를 삭제하는 동시에 각 항의 용어와 예제들을 사정한 표준말로써 적당히 수정, 정리하였다. 1940년 6월 15일에는 원안의 일부를 개정하였는데, 제 19항에 있는 '후'를 '추'로 바꾸었으며(갓후다→갓추다, 맞후다→맞추다), 제 30항에서 사이시옷을 중간에 모두 쓰도록 하였다(뫼간→뫼간, 움집→움집). 또, 제 29항의 문구를 수정하고 부록 부호를 증보, 수정하였다. 다시 일부 개정이 1946년 9월 8일에 있었다. 제 30항에서 중간에 모두 쓰게 한 사이시옷을 모음으로 끝난 말 뒤에서만 받침으로 쓰도록 바꾸어(뫼간→뫼간, 움집→움집) 이전의 안대로 되돌리고, 보조용언과 의존명사는 붙여 쓰도록 한 제 62, 63, 64항을 삭제하여 모두 띄어 쓰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는 총론 3조와 7장 63항의 각론 및 두 부록으로 조정되게 되었다. 이 중 북한에서 '조선어 철자법'이 제정되기 전에 사용된 맞춤법이 어느 때의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한글학회(1982)의 각 머리말, 주 1) 참조.
- 3) 1970년 4월에 시작하여 동년 12월에 초안을 작성한 뒤 여러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1979년 12월에 최종 시안을 마련하였다. 1981년 5월 이후 4년 동안에 학술원에서 검토, 보완한 것을 국어연구소가 1985년 2월부터 다시 검토, 보완하여 1987년 9월에 최종안을 문교부에 제출하였다. 문교부는 국어심의회 의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이는 본문 6장 57항 및 부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현재에 와서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빨래, 놀았다, ㄹ동, 북방, 기차'를 '빨래, 노랠다, 아동, 북방, 기차'로 적도록 한 규정),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모 순서의 규정, 한자음의 두음법칙에 관한 규정), 실용상 준수되지 않은 규정을 현실화하고(비불규칙, 종결형어미 '-오', 접미사 '-이', 사이시옷·준말의 표기, 띄어쓰기), 문장 부호의 증별 및 사용법을 체계화한 것이다. 국어연구소(1988a) 참조.
- 4) 1954년 초에 시작하여 4월에 초안을 작성하고, 2개월여의 토의를 거친 다음 9월에 공포되었는데, 이는 전문 8장 56항으로 문장 부호가 조문에 새로 삽입되어 있다. 이 새로운 맞춤법에서 달라진 점은 한글 자모에 대한 규정과 세칙의 부분적인 사항이다. 달라진 내용은 본문에서 언급될 것이다. 金敏洙(1972, 1985: 83-85) 참조.
- 5) 이는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1966년 6월에 제정한 것으로 '조선어 철자법'에 대한 개정이었으며, 북한에서 약 10년만에 이루어진 제 2차 개정인 것이다. 맞

에 걸쳐 띄어쓰기 부분을 일부 수정하였다.<sup>6)</sup>

남북한이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맞춤법은 출발에 있어서는 같았다. 그러나, 교류가 없이 각각 시행해 온 결과로 지금은 적지 않은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이상에서 언급한 남북한의 맞춤법이 변해 온 과정을 金敏洙(1985: 76)에 의거하여 재정리해 보면



과 같다. 이 글에서는 현재 북한이 사용하고 있는 규범집을 살필 것이

춤법·띄어쓰기·문장부호법·표준발음법의 4부로 되어 있고, 각기 총칙과 세칙의 여러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전에 비해 띄어쓰기가 더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고, 표준발음법이 더 확충되어 규범화된 것이다. 金敏洙(1985: 89~91, 資料 1) 참조.

6) 이는 각각 1985년과 1988년에 수정되었는데, 붙여 쓰던 단위들을 띄어 쓰는 방향에서 조절한 것이다. 달라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오전, 오후, 음력, 윤, 아침, 낮, 저녁, 밤, 새벽...’ 따위는 띄어 쓴다.

아침 10 시→아침 10시, 음력 3월→음력 3월, 오후 5시→오후 5시

둘째, 훈장의 이름과 그 뒤에 오는 급수 사이는 띄어 쓴다.

국기훈장제 1급→국기훈장 제 1급

셋째, 공통적으로 걸리는 단위가 칭호인 경우에는 뒤 단위로 띄어 쓴다.

김장법, 황영순동무들이다→김장법, 황영순 동무들이다

넷째, 불완전명사적으로 처리하는 한자말에 ‘형, 식, 성, 격, 년(년도)’ 등을 더 포함시켜 뒤 단위로 띄어 쓴다.

소형뜨락또르→소형 트랙또르, 탐식기증기→탐식 기증기, 급성폐염→급성 폐염

다섯째, 수를 우리글로 적을 경우에는 ‘백, 천, 만, 억, 조’ 단위로 띄어 쓴다.

구십삼억 칠천이백오십팔만 육천삼백예순다섯→구십삼억 칠천 이백 오십팔만 육천 삼백 예순다섯, 93억 7천 258만 6천 365→93억 7천 2백 58만 6천 3백 65

여섯째, 굳어진 것으로 보고 붙여 쓰던 ‘-지 않다’ 형은 모두 ‘-지 않다’ 형으로 띄어 쓴다.

마지못해→마지 못해, 못지않다→못지 않다, 바라마지않다→바라마지 않다  
심병오(1988: 8~10) 참조.

7) 1988년 1월 19일 고시됐지만,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이 해를 경계로 삼은 것이다. 따라서, 현재 남한에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유효하나, 이 글에서는 북한과 비교할 경우 시행을 전제로 하여 이 ‘한글 맞춤법’의 내용을 언급할 것이다.

며,<sup>8)</sup> 그 가운데 남북한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을 좀 자세히 언급하여 남북한 맞춤법의 이질화 정도를 알아볼 것이다.

## 2. 맞춤법<sup>9)</sup>

북한의 맞춤법은 총칙 2조와 7장 28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칙 1은 “단어에서 뜻을 가지는 매개의 부분을 언제나 같게 적는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라 되어 있어, 역사적으로 인정되어 온 형태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통일안’ 이후 남북이 공통으로 유지해 온 표기의 기본 원칙이다.<sup>10)</sup> 북한은 총칙 2에서 ‘조선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쓰는것을 원칙’으로 규정하여, 이에 대한 규정 없이 가로쓰기와 세로쓰기를 다 고려한 남한과는 차이가 있다.<sup>11)</sup>

각 장은 자모의 차례와 그 이름, 형태부의 적기, 어간과 토의 적기, 합성어의 적기, 접두사와 어근의 적기, 어근과 접미사의 적기, 한자말의 적기로 되어 있다. 이는 단어를 최대 단위로 하여 그 안에서의 표기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남한에서 띄어쓰기를 포함한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sup>12)</sup> 제 1장 자모의 차례와 그 이름 부분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표기에서 형태를 밝혀 적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어서 이에 맞춰 서술하기로 한다.

### 2.1. 자모의 차례와 그 이름

북한은 겹자모까지를 하나의 자모단위로 보아 자모수를 40개로 하였고,

8) 북한의 맞춤법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남한의 것과 차이가 없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다루어야 하겠지만, 한정된 지면으로 이를 다 보이지 못한 것이 아쉽다. 원문의 전문은 金敏洙(1985: 資料 1)를 참고하기 바란다.

9) 이는 단어 내부의 표기만을 다루는 의미로서 사용한 것이다. 이 장에서 사용된 이 말은 모두 이 개념이다.

10) 남한의 맞춤법 총칙 제 1항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형태주의 원칙이 지배적일지라도 규정상으로는 표준주의가 기본 원칙이고 형태주의는 기본 원칙에 대한 조건으로 되어 있다.

11) 남한은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정 없이 문장 부호의 설명에서 가로쓰기와 세로쓰기를 다 전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북한은 ‘조선어 철자법’에서 세로 삽입하였다.

12) 북한은 이전의 ‘철자법’에서 띄어쓰기, 표준발음법, 문장부호를 다 언급했었으며, 이의 구분은 ‘규범집’에서 비롯된다.



ㅈ ㅊ ㅋ ㅌ ㅍ ㅎ'과 같이 되어 북한과 다르다.

### 2.2. 형태부의 적기

여기에는 받침 'ㅅ'을 적는 경우와 한 형태부 안에서는 소리대로 적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내용은 남한과 차이가 없다.

무릇, 병긱병긱, 사뭇, 얼핏, 헛소문, 겨누다, 디디다, 비치다, 지키다, 걸레, 놀라다, 실룩실룩, 얼른, 흰썩, 말쑤, 몽뚝하다, 반짝반짝

그런데, 현대에 한 형태부로 인정되는 '(으)ㄹ'로 시작되는 어미의 경우, 남북한 공히 예외로 기원적인 형태를 밝혀 적고, 발음은 된소리를 인정하고 있다.

-(으)ㄹ수록, -(으)ㄹ지라도, -올시다

단, 남한은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에 한해 소리대로 적도록 하는데, 북한은 이 경우에도 기원적인 형태를 밝혀 적고 있어, 남한보다 더 형태를 밝혀 적는 편이다.

-(으)ㄹ까, -(으)ㄹ꼬, -(으)ㄹ쏘냐/-ㄹ가, -ㄹ고, -ㄹ소냐

### 2.3. 어간과 토의 적기<sup>14)</sup>

현대에 어간과 토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는<sup>15)</sup> 전부 본디의 형태를 밝혀 적도록 하고 있다. 다만, 어간과 토가 어울릴 적에 일부 소리가 변한 것은 소리대로 적고 있다. 즉 불규칙활용이나 소리가 줄어질 적의 경우이다. 이는 남한도 마찬가지인데, 세부 사항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 하나는 어간 끝소리 'ㅂ'이 '오'나 '우'로 바뀌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어미 '어'가 '여'로 바뀌는 경우이다.<sup>16)</sup> 이는 엄밀히 말하면 맞춤법의 문제가 아니라,

14) 북한에서는 조사를 하나의 품사로 인정하지 않고, 어미와 더불어 하나의 접미사로서 문법적 형태부로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 토와 분리된 부분은 책언어나 용언의 구별없이 어간이 된다. 과학, 백과사전출판사(1979) 참조.

15) 과거에는 분석이 가능했으나 현대에는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것이나, 단어의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리대로 적는다.

부러지다, 사라지다, 부터, 조차

16)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고 다음의 소리가 거센소리로 될 때, '통알안'에서는 'ㅎ'을 중간에 놓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ㅎ'을 받침으로 쓰는 것

표준어의 문제이다.

남한에서 맞춤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어간 끝소리 ‘ㅂ’이 양성모음과 어울려서 ‘오’로 변해 그대로 적었고, 음성모음과 어울려서 ‘우’로 변해 그대로 적었다.

반가와, 괴로와, 매워, 무거워, 구워, 쉬워, 미워, 고와, 도와

북한은 현재까지 이에 변화가 없이 그대로 지켜오고 있다. 그런데, 남한에서는 어간 끝소리 ‘ㅂ’이 모음과 어울릴 적에는 모두 ‘우’로 변하는 것을 표준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적도록 개정하였다. 단, ‘돕—, 곱—’과 같은 단음절 어간일 경우만은 ‘우’를 인정하지 않고 ‘오’를 표준으로 정하였다.

반가워, 괴로워, 매워, 무거워, 구워, 쉬워, 미워, 고와, 도와

다음으로, 북한은 어간의 끝소리가 ‘ㄱ, ㅈ, ㅊ, ㅋ, ㆁ, ㄷ, ㄴ’ 등인 경우와 어간이 ‘하’인 경우에는 어미 ‘어’를 ‘여’로 적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이미 1954년의 ‘철자법’에서 규정된 것이다.

기여, 개여, 배여, 되여, 귀여, 희여, 하여

이에 준하여 ‘구태여, 도리어, 드디여, 헤염’ 등을 표준으로 정해 놓고 있다. 이와는 달리 남한에서는 ‘여’의 표기를 어간이 ‘하’인 경우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북한보다 더 형태를 밝혀 적고 있는 편이다. 이는 남북한 사이의 표기 차이라기보다는 근본적인 발음 차이라 하겠다.

#### 2.4. 합성어의 적기

북한에서 합성어는 매개 어근의 본디 형태를 각각 밝혀 적는 것을 원칙

도 허용했다.

가흥다(갈다), 부지런흥다(부지런다), 다정흥다(다정다)  
그런데, 북한의 ‘철자법’은 이 경우에 ‘흥’을 중간에 놓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의 자음을 거센소리로 적는 것을 허용했다.

가흥타(가타), 부지런흥타(부지런타), 다정흥타(다정타)  
그 후 ‘규범집’에서는 이 경우 거센소리로만 적도록 하고 있어, 지금까지 남북에 차이가 있었으나, 이번 남한에서의 개정으로 그 차이는 없어졌다.

가타, 부지런타, 다정타

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도록 하고 있다. 첫째, ‘ㅂ’이나 ‘ㅎ’소리가 덧날 때, 둘째, 어느 소리가 빠질 때, 셋째, 앞 어근의 끝소리 ‘ㄷ’이 닫힘소리로 될 때, 넷째, 어원이 분명하지 않을 때이다.

몹쌀, 찰쌀, 머리카락, 살코기, 다달이, 화살, 바느질, 소나무, 설달, 손가락, 며칠, 부리나케

이는 남한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서 서로의 차이가 없다. 그런데, 남한은 여기에 두 경우의 예외를 더 두고 있다. 그 하나는 ‘이[齒, 虱]’가 들어간 합성어는 소리대로 적도록 한 것이다.

간니, 덧니, 사랑니, 가랑니, 머릿니

다른 하나는 사잇소리(사이시옷)의 표기인데, 순 우리말이 들어 있는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에 한해 ‘ㅅ’을 앞말에 받쳐

고랫재, 나룻배, 뱃나물, 텃마당, 두룻길, 나룻길, 사갓밥, 전셋집, 제삿날, 양칫물, 가윗길, 예삿일

등과 같이 적도록 하고, 아래 한자어의 경우는 이에 준하도록 하였는데,<sup>17)</sup>

긱간, 셋방, 솟자, 찻간, 뿃간, 횃수

북한은 지난 ‘조선어 철자법’의 규정<sup>18)</sup>을 삭제함으로써 현재는 합성어에서 아무런 표지도 하지 않게 되었다.<sup>19)</sup> 따라서, 이러한 단어들은 표기에

17) 개정되기 전 ‘통일안’에서는 순 우리말이나 한자어 구분 없이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때에만 ‘ㅅ’을 받쳐 적도록 하고 있다.

바닷가, 깃발, 뱃물, 보름달, 밤이슬

그런데, 1940년 6월 15일 개정에서는 받침 유무에 관계 없이 모든 합성어의 중간에 ‘ㅅ’을 넣기도 했었다(주 2) 참조).

바다ㅅ가, 내ㅅ물, 보름ㅅ달, 밤ㅅ이슬

18) 이런 경우에 앞말의 받침 유무에 관계 없이 합성어의 사이에 모두 사이표(‘)를 두도록 하였다.

바다’가, 내’물, 기’발, 보름’달, 밤’이슬

19) 그러나, 발음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사이표(‘)를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사이표를 없애는 이유는 고유어에서 이런 발음이 점차 없어져 가고, 한자어에서는 점차 늘어나게 되어 쓰거나 읽기에 복잡하고, 글을 쓰는 데서 사이표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분간하기가 어려워 실천상 불편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남한에서의 이번 개정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서 형태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그들의 발음을 개별적으로 사전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바다가[-까], 기발[-빨], 내물[넨-], 보름달[-달], 밤이슬[-니-], 어금  
이[-니]

## 2.5. 접두사와 어근의 적기

접두사와 어근이 어울릴 적에는 각각 그 본디 형태를 밝혀 적도록 하여, 남한과 차이가 없다.

뒹저고리, 선웃음, 짓밟다, 갓마흔

## 2.6. 어근과 접미사의 적기

이는 ‘규범집’에서 크게 둘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자음으로 시작한 접미사가 어근과 어울릴 적이고, 다른 하나는 모음으로 시작한 접미사가 어근과 어울릴 적이다. 전자의 경우에 그 형태를 밝혀 적는 것이 원칙이며, 둘받침으로 끝난 어근에서 한 소리가 나지 않은 것과 어근과 접미사가 어울리어 아주 다른 뜻으로 바뀐 것은 소리대로 적는 예외를 두었고,

뒹개, 읊기다, 반치다, 늦추다, 가득히, 말끔하다, 널적하다, 알뜰하다, 거두  
다, 기르다, 도리다, 드리다, 이루다

후자의 경우에는 그 형태를 밝혀 적을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형태를 밝혀 적을 경우는 첫째, 명사나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 ‘이’, 둘째,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음’, 셋째, 동사의 사역 또는 피동을 나타내거나 형용사를 동사로 만드는 접미사 ‘이, 우, 으키, 이키, 애’, 넷째, ‘하다’가 붙어서 형용사로 될 수 있는 어근과 어울려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 ‘이’, 다섯째, 형용사를 만드는 ‘없’, 여섯째, ‘거리’와 어울릴 수 있는 어근에 붙어서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 ‘이’ 등이 어울릴 경우이다. 이 상은 남한도 마찬가지이다.

길이, 벼훅이, 네눈이, 삼발이, 많이, 곳곳이, 걸음, 믿음, 먹이다, 돋우다, 일으키다, 돌이키다, 없애다, 바투이, 깨끗이, 시름없다, 반짝이다

형태를 밝혀 적지 않는 경우는 첫째, 어근에 ‘이, 음’ 이외의 접미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명사나 부사, 둘째, 어떤 토나 ‘하다’가 붙어서 단어를 이루는 일이 없는 어근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된 명사나 부사, 셋째, 접미사 ‘양, 영’ 또는 ‘업, 읍’이 붙어서 이루어진 형용사 동일 때이다.<sup>20)</sup>

나머지, 마갑, 마개, 쓰레기, 꼬트머리, 너무, 도로, 자주, 비로소, 뜨덥뜨덥, 거뭇거뭇, 울긋불긋, 동그라미, 부스러기, 개구리, 갑자기, 가맣다, 누렇다, 갠 지럽다, 우습다

이 경우 남한과 커다란 차이가 없으나, 접미사 ‘이’가 붙어 명사나 부사가 될 때 형태를 밝혀 적는 정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명사가 되는 경우 북한은 ‘하다’가 붙어서 단어를 이루는 일이 없는 어근일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남한은 이번 개정으로 ‘하다’ 뿐 아니라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까지도 그 형태를 밝혀 적도록 하고 있어, ‘하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이라도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이면 그 형태를 밝혀 적도록 하고 있다. 이는 북한에 비해서 남한이 더 형태를 밝혀 적는 쪽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깎쪽이, 꿀꿀이, 더필이, 뼈죽이, 살살이, 썩썩이, 오뚝이, 푸석이, 흘쪽이

다음으로, 접미사 ‘이’가 붙어 부사가 되는 경우인데, 남한에서 하나의 조건을 더 추가함으로써 남북한 사이에 표기가 같았던 단어들 일부 달라지게 되었다. 즉, 어떤 토나 ‘하다’가 붙어서 단어를 이루는 일이 없는 어근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경우에 소리대로 적도록 한 것과 함께 부사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는 형태를 밝혀 적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하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이라도 그것이 부사인 경우 밝혀 적는 것이다.

곰곰이, 더욱이, 생긋이, 오뚝이, 일찍이, 해죽이

## 2.7. 한자말의 적기

북한은 한자어를 적는 데 있어 음절마다 한자의 현대음에 따라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한자어의 음절 각각을 하나의 형태부로 인

20) 남한에서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남북에 차이가 없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서로가 달라졌다.

정하여 어느 위치에서나 같게 적는 형태주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한자어에서는 변한 음을 그대로

나팔, 나사, 남색, 노, 유리

등으로 적고 있다.<sup>21)</sup> 남한에서는 의존명사나 외래어를 제외하고는 어두의 ‘ㄹ’이나 ‘ㄴ’ 소리를 인정하지 않고, 모음이나 ‘ㄴ’ 뒤에 ‘ㄹ’, ‘ㄴ’ 소리도 오지 않으므로, 굳이 한자의 본음을 밝혀 적지 않는다.

여자, 요소, 유대, 양심, 역사, 유행, 나열, 분열, 비울, 백분율

다음으로, 북한은 한자음의 모음에서 ‘꺨’는 ‘계, 례, 헤, 예’에서만 인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남한에서 인정되고 있는 ‘메, 페’를 북한에서는 그 소리가 ‘메, 페’로 완전히 바뀐 것으로 처리하여 표기도 ‘메, 페’로 적고 있다.

계산, 례외, 헤택, 예술, 화페, 련메<sup>22)</sup>

### 3. 띄어쓰기

북한의 띄어쓰기는 총칙과 6장 23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칙은 “단어를 단위로 하여 띄어쓰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자모를 소리마디단위로 묶어쓰는 특성을 고려하여 특수한 어휘부류는 붙여쓰기로 한다.”로 되어 있어 남한과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북한은 토를 단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붙여 쓰도록 하는 조항이 없다. 또, 북한은 붙여 써야 하는 경우를 넓게 잡아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남한은 극히 일부에 한해 붙여 쓰도록 하거나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각 장은 명사와 관련한 띄어쓰기, 수사·대명사와 관련한 띄어쓰기, 동사·형용사와 관련한 띄어쓰기, 관형사·부사·감동사와 관련한 띄어쓰기, 쉬갈리기 쉬운 것들의 띄어쓰기, 특수한 말의 띄어쓰기로 되어 있다. 북한

21) ‘철자법’에서는 이 변한 음을 인정하지 않고, 한자의 본음을 적도록 되어 있다.

22) ‘련메’는 북한 사전에 올라 있지 않은 말인데, 남한과 비교하기 위해 필자가 보기로 넣은 것이다. ‘袞’는 북한의 육편에 ‘메’로 되어 있다.

은 지나치게 붙여 썼기 때문에 띄어 쓰는 방향으로 조절하였고,<sup>23)</sup> 남한은 원칙적으로 너무 띄어 썼기 때문에 붙여 쓰는 방향으로 조절하였다.<sup>24)</sup> 여기에서는 '규범집'의 순서에 따라 살피면서, 남한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비교하고자 한다.

### 3.1. 명사와 관련한 띄어쓰기

이 경우 남한에서는 붙여 쓰도록 하거나 붙여 씀을 허용하고 있다. 첫째,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김양수, 서화담, 홍길동, 정승강

둘째, 성명 이외의 고유명사는 단위별로 띄어 씀을 허용하고 있다.

대한 중학교(대한중학교), 한국 대학교 사범 대학(한국대학교 사범대학)

따라서, 이외의 경우는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붙여 쓰는 경우를 남한보다 더 많이 인정하고 있다. 첫째, 명사들이 토 없이 직접 어울린 경우에는 하나의 대상으로 묶어지는 덩이를 단위로<sup>25)</sup> 띄어 쓰며,

사회주의농촌건설속도가 빠르다, 15세기중엽 사회경제형편을 보면..., 테발전승이다, 10층아파트가 들어섰다, 새날협동농장으로 갑니다, 승리 58형이 나왔다, 리순신훈장을 받았다, 박철복의 토론, 한인선동무의 토론, 김준식박사의 논문, 평양사범대학부속 고등전설학교, 아침저녁식사를 여기서 한다, 기술자 자신이 만들었다, 학생스스로가 깨달았다

둘째, 불완전명사는 그 앞 단위에 붙여 쓰도록 하고 있다.<sup>26)</sup>

23) 주 6) 참조.

24) '통일안'에서 붙여 씀을 허용한 것은 다음의 경우에 한했다.

이곳 저곳, 제 이십 일항, 좀더 큰 이 새나라, 열술 밥, 병술 집, 일만 삼천 구백 오십 팔

25) 이는 일반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경우, 고유한 대상을 나타내는 경우, 고유한 명칭의 앞뒤에 보통명사적인 것이 어울린 경우, 나란히 어울린 것에 공통적으로 걸리는 단위가 온 경우, 앞 명사를 다시 받는 '자신, 자체, 전체...'가 온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26) 그러나, '등, 대, 겸...'은 띄어 쓰며 '및'도 이에 준하여 띄어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말할나위가 없다, 바로 종을 칠것, 회의중이었다, 그가 오기전에 다 읽자, 금년초에 공사가 끝났다

### 3.2. 수사·대명사와 관련한 띄어쓰기

이 경우에도 남한에서는 붙여 쓰도록 하거나 붙여 씀을 허용하고 있다. 첫째, 수를 적을 적에는 ‘만’ 단위로 띄어 쓰며,<sup>27)</sup>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 12억 3456만 7898

둘째,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린 명사는 다음과 같이

제 1 실습실(제 1실습실), 10 개(10개), 두 시 삼십 분 오 초(두시 삼십분 오 초), 삼 학년(삼학년), 7 미터(7미터), 16 동 502 호(16동 502호)

붙여 씀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에서 수는 아라비아숫자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우리글로만 적을 경우나 단위를 우리글로 달아 줄 적에는 ‘백, 천, 만, 억, 조’ 등의 단위에서 띄어 쓰도록 하고 있으며,<sup>28)</sup>

구십삼억 칠천 이백 오십팔만 육천 삼백 예순다섯, 93억 7천 2백 58만 6천 3백 65

연달아 세어 나갈 때의 단위로 될 수 있는 명사는 붙여 쓰도록 하고 있다.

일년, 5호, 9차, 1966년 6월 22일, 2시 39분 28초, 서른결레, 다섯알

그리고, 대명사는 불완전명사와 직접 어울린 것만을 붙여 쓰도록 하고 있다.

이것, 저분, 누구것이나, 이 책, 우리 나라, 내 조국, 누구 가방

27) ‘통일안’에서는 십진법 단위로 띄어 쓰도록 하였으며, 단위를 우리글로 달아 줄 적의 규정은 없었다.

십 이억 삼천 사백 오십 육만 칠천 팔백 구십 팔

28) ‘규범집’의 내용이 바뀌기 전에는 순 우리글로만 적을 적에는 ‘만, 억, 조’ 단위에서, 아라비아숫자에 단위를 우리글로 적을 적에는 ‘천, 만, 억, 조’ 단위에서 띄어 쓰도록 되어 있다.

구십삼억 칠천이백오십팔만 육천삼백예순다섯, 93억 7천 258만 6천 365

### 3.3. 동사·형용사와 관련한 띄어쓰기

남한에서는 어미 ‘아, 어’나 ‘ㄴ, ㄹ’ 뒤에 연결되는 보조용언에 한해 경우에 따라 붙여 씀을 허용하고 있으나,

꺼져 간다(꺼져간다), 도와 드린다(도와드린다), 울 듯하다(울듯하다), 할 만하다(할만하다), 아는 척한다(아는척한다)

앞말과 직접 어울리지 않거나 합성어인 경우와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때에는

놀아만 나는구나, 덤벼들어 보아라, 그가 울 듯도 하다

등과 같이 붙여 씀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북한에서는 첫째, 어미 ‘지’가 아닌 다른 어미 뒤에 연결되는 보조용언은 붙여 쓰며,

돌아가다, 분석하여가지다, 올려다보다, 버티여내다, 물어보다, 읽고있다, 읽는가싶다, 읽을가보다, 읽고싶다, 쓰다나니, 오고말고, 울듯하다, 들을만하다, 만날번했다, 웃을사하다, 아는체하다

둘째, 하나로 녹아 붙은 것은 붙여 쓰고, 동사나 형용사가 잇달아 있을 경우에는 행동의 단위에 따라 띄어 쓴다.

짜고들다, 먹고떨어지다, 기여넘어가 살펴보다, 들어가 집어올리다

### 3.4. 관형사·부사·감동사와 관련한 띄어쓰기

북한은 뜻이 비슷하거나 맞서는 부사를 겹쳐 쓸 경우는 붙여 쓰며,

가로세로, 더욱더, 모두다, 이리저리

두 개 이상의 말들이 합치어 한마디의 부사와 같이 된 경우도 붙여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간밤에, 이다음, 여러차례, 두고두고, 끝이끝대로, 어느새, 요사이

또, 감동사나 느낌을 나타내는 말마디를 잇대어 쓸 경우는 소리내는 특성이나 그 뜻을 고려하여 띄어 쓰도록 하고 있다.

아아 아! (아 아아!), 얼시구 절시구 얼사 등등(얼시구절시구 얼사등등)

### 3.5. 섞갈리기 쉬운 것들의 띄어쓰기

북한은 명사와 토 없이 직접 어울린 ‘너머, 따라’는 붙여 쓰며,

산너머 외가집에 갔다, 오늘따라 바람이 세군

평사에 동사나 형용사가 어울리거나 동사나 형용사끼리 어울려서 하나로 녹아 붙은 것은

한결같다, 귀죽은듯이, 두말없이, 할수없이, 다름아니라, 아닌게아니라, 듣다 못해, 아나나다를가

와 같이 붙여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 3.6. 특수한 말의 띄어쓰기

남한에서 전문 용어는 붙여 쓰음을 허용하고 있는데,

만성 골수성 백혈병(만성골수성백혈병), 중거리 탄도 유도탄(중거리탄도유도탄)

북한에서는 하나의 대상으로 묶여지는 덩이를 단위로 띄어 쓰도록 하고 있다.

작은물병아리, 나도국수나무, 평의다리아재비

## 4. 맺음말

분단 이후 남북한은 각기 개별적으로 맞춤법을 수정하였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뿌리박고 정당성이 인정되는 형태주의 원칙은 바뀌지 않고 남북한에서 공통으로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맞춤법에 있어서 남북한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 눈에 띄게 달라진 것으로 자모의 수와 차례, 어두음 ‘ㄹ’이나 ‘니’, 띄어쓰기 정도이다. 그 외에 세칙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그 형태를 밝혀 적거나 그렇지 않은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다.

북한은 24 자모를 부정하고 40 자모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자모의 순서도 달라졌다. 이는 사전이나 온갖 책에서 자모의 배열법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두음법칙이 부정됨으로써 발음의 차이까지 유발하나, 이는 표기상에 있어서 상당히 인위적인 결과일 뿐 전통적인 발음의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철저히 단어별로 띄어 쓰던 것에서 남북한 공히 약간 붙여 쓰는 방향으로 조절하고 있어 커다란 문제는 제기되지 않는다.

북한의 이른바 문화어 운동에 의한 어휘 정리로 야기되는 남북의 차이에 비하면, 표기법의 차이는 극히 미미하다 하겠다. 그러나, 어휘의 차이는 하나의 민족으로서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언어의 자연적인 변화에 의해 차이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강력하게 진행됨으로써 일어나는 차이이므로 그 속도와 정도는 얼마나 심하겠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남북한 언어의 공동 연구는 통일을 앞당기는 튼튼한 대담돌이 될 것이다. □

#### 참 고 문 헌

- 과학, 백과사전출판사(1979), 조선문화어문법, 평양.
- 과학원 조선어 및 조선 문학 연구소(1954), 조선어 철자법, 평양, 과학원 출판사.
- 국어연구소(1988a), 국어생활 여름(제13호), 서울.
- (1988b), 한글 맞춤법 해설, 서울.
- 金敏洙(1972), 北韓의 言語政策, 亞細亞研究 XV-4.
- (1985), 北韓의 國語研究, 서울, 高麗大學校 出版部.
- 김일성(1964),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 가지 문제, 문화어학습 1968.2호.
- 김일성(1966), 조선어의 민족적 특성을 옹계 살려 나갈 데 대하여, 문화어학습 1969.3호.
- 내각직속 국어사정위원회(1966), 조선말규범집, 평양, 사회과학원출판사. 번각 1966.10, 동경, 학우서방.
-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1971), 《조선말규범집》해설, 평양, 사회과학원출판사. 번각 1972.10, 동경, 학우서방.
- (1981), 현대조선말사전(제2판), 평양, 과학, 백과사전 출판사.
- 심병호(1988), 《조선말규범집》(띄어쓰기)에서 일부 달라진 내용에 대하여, 문화어학습 1호.
- 장장명(1958), 조선어 철자법 해설(교원용), 평양, 교육 도서 출판사. 번인 1960.6, 동경, 학우서방.
- 한글학회(1982), 한글 맞춤법 통일안(처음판 및 고침판 모음) 붙임 :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 서울.